

우리나라 대학생의 혼전 성윤리의식 형성과정 모델화

- 가톨릭계 대학 여학생을 중심으로 -

김 승 주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혼전 성윤리의식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로서 성 가치관 혼란과 성도덕 붕괴의 현실 속에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성의식을 형성해 가는지 그 과정과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 이를 모델화하기 위해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혼전 성윤리의식 형성과정의 중심현상은 ‘혼란의 늪을 빠져나오기’로 파악되었다. 즉 여학생들의 순결 가치관 형성은 단순한 가정교육의 영향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닌 ‘혼란의 늪을 빠져나와 확실한 꿈을 꾸는 과정’이었고,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외적으로 변해가는 점진적인 발달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개인만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인격 속에 건전하고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 및 자각을 길러주기 위해 가정, 학교, 사회 또는 종교가 그 영역을 확실히 하고 맡은 영역에서의 성교육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소중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몸이 건강하게 유지해야 함을 가르치는 생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학생의 발달과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그들 개인의 몫으로 맡겨져 있던 전략수립과 실천과정을 돕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을 수립하여 ‘확실한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성윤리의식, 성가치관, 혼전순결, 근거이론

I. 문제제기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문화가 혼란 상태에 있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혼전(婚前)의 성적 행동이 절제 또는 억제되길 기대하면서 동시에 성의 생식기능과 쾌락기능을 분리하고, 순결과 정절의 가치를 중요시하면서도 남녀에게 각기 다른 성윤리를 적용하고 강요하는 이중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올바른 성의식 정착을 위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성교육을 통해 얻은 구체적 지식이 오히려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되어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성을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게 여기는 전통적 가치는 청년기가 연장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확대되며 상업적 성문화가 발달하면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성적인 발달은 점점 빨라지고 결혼 연령은 늦어져, 성인으로서 성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까지 유보되어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으며 대량의 서양 성문화 유입으로 인한 성적 개방이 촉진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대체할 만한 올바른 성의식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성가치관의 혼란과 성도덕의 붕괴가 초래되었으며, 특별히 성적 발달을 과제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미치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이 시기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한 음란하고 과장된 성 상품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무차별적으로 성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부모들은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성교육의 동반자로 서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당황해 하고 있다¹⁾.

혼전 성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너무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성행동이 비효과적인 피임, 예기치 않은 임신, 너무 빨리 부모가 되는 등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²⁾. 한편 대학생 연령층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상의 변화 추세와 이에 관련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 있다³⁾.

한국의 남녀 대학생 혼전 성윤리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성의식과 성태도에 관한 연구들(박희두, 1997; 김영화, 1997; 이연희·이정희, 2000; 윤경자, 2002)로서 대학생들의 성의식과 태도, 성행동, 이성교제, 성관계 경험, 성교육 등에 대한 연구를

1) 임미림, 변영순, 「학부모들의 성의식, 성교육 태도 조사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권 1호(서울: 한국학교보건학회, 2002), 17쪽.

2) Miller, B. C. & Moore, K. A. "Adolescent Sexual Behavior, Pregnancy and Parenting : Research through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990, p.1025-1044.

3) Bell, R. R. & Coughy, K. "Premarital Sexual Experience Among College Females, 1958, 1986 & 1978" *Family Relations*, 29, 1980, p.353-357.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성태도의 수준은 보통, 성에 대한 의식은 보수적으로 나타난 배성미(2002)의 연구, 성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긍정적, 개방적이라고 보고한 김은자(1979), 성영자(1984), 박희두(1997)등의 연구,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경험률이 높았다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이인숙, 1994; 장휘숙, 1995) 등이 있다. 연령별, 학년별, 성별로 성윤리 의식에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혼전성관계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며, 성경험률도 높게 나타났으며(이인숙, 1994; 장휘숙, 1995; 정민자, 1995; 김종성, 1999), 자신의 순결에 대해선 개방적이면서 타인의 순결에 대해선 보수적인 이중적인 성태도를 보이고 있다⁴⁾.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대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혼란한 성문화 속에서 어떻게 혼전 성윤리의식을 형성해 가는지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모델화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오늘날 혼란과 위협 속에서도 전통적 가치관과 성도덕을 지키려 애쓰는 대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그 결과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닌 형성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시기 성에 대한 이해와 성교육의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들은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방법을 통해 선정되었다. 가톨릭 이념과 꽃동네 정신으로 설립·운영되는 꽃동네대학교의 여학생 중 가톨릭 또는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의도표집 하였다. 또한 그 참여자로부터 또 한 사람을 소개받는 식의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총 12명의 참여자를 발굴하였다. 이 연구 참여자들은 이론개발을 위해 미리 선정한 기준, 즉 혼전 성윤리의식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였다.

2. 자료수집

분석자료는 반개방형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일대일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특정 경험 및 사건에 대한 묘사적 기록과 면담 내용들을

4) 김영희,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9쪽.

기초로 원자료(raw data)를 만들었다. 심층면담 이외에도 성과 생명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자 연구 참여자 5명과 함께 한 차례 초점집단(focus group)을 운영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관계하는 신앙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심층면담은 1인당 평균 2회, 1회당 평균 60분이 소요되었으며, 자료는 정보의 각 범주들이 포화(saturated)될 때까지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4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였다.

3. 자료분석

자료는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ative)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은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안한 대로 개방코딩(open coding) → 축코딩(axial coding) →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 상황모형(situational matrix) 개발의 순으로 이루어 졌다.

근거이론 접근방법이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실제 연구현장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근거이론 방법은 기존의 이론 또는 연구자가 정립한 이론과 연구현장에서 수집되는 자료와의 지속적인 비교분석이 중요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교 방법이라고도 한다⁵⁾. 근거이론 접근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강조되는 귀납적인 접근(inductive approach)을 통해 다른 접근방법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된 분석절차를 통해 질적인 분석을 하는 체계적이고 통제된 접근방법을 활용한다⁶⁾. Strauss & Corbin(1994)에 의하면 이론이란 개념 혹은 일련의 개념군 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이론은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서 명료해지며, 내러티브 진술, 시각적 그림, 혹은 일련의 가설이나 명제의 형태를 띌 수 있으며⁷⁾ 이러한 형태가 연구의 결과물이 될 수 있다.

근거이론 접근방법이 다른 질적 연구와 가장 큰 차이는 이론의 발달과 정립, 그리고 검증(verification)을 근본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양적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론을 토대로 가설을 세우고 이를 질적으로 검증한다는 것 외에 연구자체가 연구과제 진행 전반에 걸쳐 독특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으로 학자에 따라 달리 주장하지만 근거이론 접근에 있어서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의 발전이 풍부한 근거자료 수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개념을 개념화(conceptualization)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념을 ‘심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에 의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5) Strauss, A. & Corbin, J.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 1990) p.273-285.

6) Greckhamer, Thomas & Koro-Ljungberg, Mirka(2005). The erosion of a method : examples from grounded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18(6), p.729-750.

7)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홍식 외 역, 『질적 연구방법론』(서울 : 학지사, 2005) 81쪽.

Ⅲ. 윤리적 문제와 연구의 엄격성

1. 윤리적 문제

본 연구는 내용의 특성상 고도의 윤리적 민감성(ethical sensitivity)를 확보해야 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비밀보장을 고려했다.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했고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구술자료를 녹취하였으며 이를 전사한 후 암호화하여 저장하였다. 또한 연구 착수 전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연구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과 언제라도 자유롭게 참여 중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한 후 구두로 동의를 얻었다. 이외에도 특히 연구자료 수집 중 얻게 된 연구 참여자들의 비밀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할 경우 윤리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2. 연구의 엄격성

질적 연구의 엄격성(rigor)이란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엄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 장기간에 걸친 관계 형성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은 질적연구의 신빙성(credibility)과 신뢰성(trustworthiness)을 저해하는 원인인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성(reactivity)과 편견(bias)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 자료수집 이전부터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간의 관계를 유지했다.

2) 연구 참여자와의 공동확인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상호주관성(inter subjectivity)을 확보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고 기술하는 과정에 연구 참여자들을 일대일로 참여케 하여 그들의 의견과 주관적 인식 등을 청취하였고 이를 기초로 해석과 기술을 했다.

IV.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연령	가족관계	본인종교	부모종교	남녀공학여부
참여자 1	21	2남 1녀 막내	가톨릭	가톨릭/가톨릭	공학/여고
참여자 2	21	무남 2녀 맏이	가톨릭	무교/무교	공학/공학
참여자 3	21	무남 2녀 막내	가톨릭	가톨릭/가톨릭	여중/공학
참여자 4	21	1남 1녀 막내	가톨릭	무교/무교	여중/여고
참여자 5	21	1남 1녀 맏이	가톨릭	가톨릭/가톨릭	여중/여고
참여자 6	21	무남 2녀 맏이	가톨릭	가톨릭/가톨릭	공학/여고
참여자 7	21	1남 2녀 둘째	개신교	개신교/개신교	공학/여고
참여자 8	20	1남 1녀 맏이	가톨릭	가톨릭/가톨릭	공학/공학
참여자 9	20	2남 1녀 막내	가톨릭	가톨릭/가톨릭	공학/여고
참여자 10	24	2남 2녀 막내	가톨릭	가톨릭/가톨릭	여중/여고
참여자 11	24	1남 1녀 맏이	가톨릭	가톨릭/가톨릭	공학/공학
참여자 12	24	1남 2녀 맏이	가톨릭	가톨릭/가톨릭	공학/여고

2. 개방코딩 : 근거자료의 범주화

개방코딩(open coding)은 근거자료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명명하여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사고나 사건, 물체, 작용/상호작용을 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 하는 과정이다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로부터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을 통해 개념을 명명하고 그 개념들을 무리지어 범주화 시키고 이 범주의 차원과 속성을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총 79개의 개념과 17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6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개방코딩에서 발견한 개념과 하위범주, 그리고 범주는 <표 2>와 같다.

8) Strauss, A., & Corbin, J.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London : Sage, Publication, 1998; p.93.

〈표 2〉 근거자료의 범주화

범 주	하위범주	개 념
성에 대한 혼란	성에 대한 양가감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경험하고픈 / 남자가 지켜 줄 것이란 신뢰 / CC의 스킨십을 보고 부러워함 / 남성에 대한 호기심 / 남학생의 성적 관심을 끌고 싶음 / 성관계 후 남자친구가 덤덤해 하면 불안해 질 것 같음 / 육구와 이성사이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느낌 / 남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움 / 야한 영화를 보는 것이 어른이 된 느낌을 들게 함 / 임신에 대한 두려움
	숨기고 억제하는 성	엄격한 가정환경으로 성에 대한 수동적 사고를 가짐 / 남자친구를 엄마에게 숨김 / 일탈행동을 용납지 않은 삶을 삼 / 성가정이라 불리는 환경에서 집 안에서만 지냄 / 친구들에 비해 자신을 너무 단혀 있는 바보라 생각 / 신념이 있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이 말할 수 없음
	혼전성관계에 대한 문화적 충격	연예인과 성관계를 꿈꾸는 친구의 말에 충격을 받음 / 고등학생의 성관계 장면동영상에 충격을 받음 / 친한 친구의 혼전 성관계 경험에 충격을 받음 / 초등학생도 성관계를 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음
체득된 성인식	혼전성관계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	육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별한 성 / 사랑보단 한순간의 쾌락 / 성을 아름답다고 느낀 적이 없음 / 대중매체를 통한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너무 쉽게 이루어진 혼전성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바바리맨을 보고 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짐
	남성의 성 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	남녀의 성인식이 다른 사실에 충격을 받음 / 아버지를 포함한 성적충동이 강한 남성에 대한 거부감 / 일방적 순결을 원하는 남자에 대한 불만 / 야동을 보는 남자형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 남자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함
학습된 성 가치관	혼전순결에 대한 가정교육	여자는 자기 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남 / 성가정이라 불리는 가정에서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게 됨 / 엄격한 가정교육에 성에 대해 수동적 태도를 가지게 됨
	혼전순결에 대한 종교교육	천주교인이기에 낙태로 이어지는 혼전관계를 멀리함 / 혼전순결은 신자의 당연한 본분 / 혼전관계를 한다면 죄책감이 들 것 같음 / 혼전순결은 신과의 문제임
	혼전순결에 대한 공공교육	의례적인 학교 성교육 / 콘돔교육만 기억에 남음 / 혼전성관계에 대한 인식:임신의두려움 / 성관계와 임신의 책임
생명 교육의 효과	생명을 위협하는 왜곡된 성을 인식하기	인공피임 - 인공수정 - 낙태의 문제를 인식함 / 낙태로 이어지는 쾌락을 추구하는 성은 생명을 위협함 / 낙태를 전제로 하는 인공피임이 나쁨 / 낙태영상을 통한 생명위협을 인식함
	생명의 가치를 배우기	생명교육을 통해 성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인식함 / 생명교육을 통해 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함 / 생명교육을 통해 혼전순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함 / 생명에 대한 자각만이 생명문화를 일으킴

혼란의 눈에서 빠져나오기	무심히 대하기	성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함 / 성은 나쁜 남자들의 전유물로 치부함
	거리두기	성에 무절제한 친구를 멀리함 / 낙태경험이 있는 친구를 멀리함 / 성에 해로운 친구를 멀리함
	차단하기	노출과 외출을 삼감 / 왜곡된 성문화에 근접하지 않기 / 왜곡된 성인식을 퍼트리는 대중문화를 피함 / 성관계를 원한다면 이별을 고려함 /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자친구와 결별함 / 친구의 좋지않은 경험을 보며 스스로 조심함 / 의지가 약한 자신의 약점을 알고 사전에 기회를 차단함
	의지하기	좋은 성가치관을 가진 친구에게 의지함 / 순결관이 투철한 선배를 따름 / 친구의 영향으로 순결관이 확고함
	자기 몸 지키기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삼감 / 성폭력에 대처할 준비를 함 / 남자친구의 지나친 성적 접근을 뿌리침 / 엄마가 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김 /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귀한 몸이므로 소중히 여김
확실한 꿈꾸기	확신 다지기	혼전순결에 대한 확신을 다짐 / 지구가 멸망해도 순결을 지킬 것임 /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순결을 버릴 수 없음 / 쉽지는 않지만 혼전순결을 반드시 지켜 낼 것임 /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으로 순결을 지킴 /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순결을 지킬 수 있음 / 미래의 꿈을 가지고 주변이 휩쓸리지 않음
	심화하기	신앙적 가치를 새기기 / 도덕적 순결을 내면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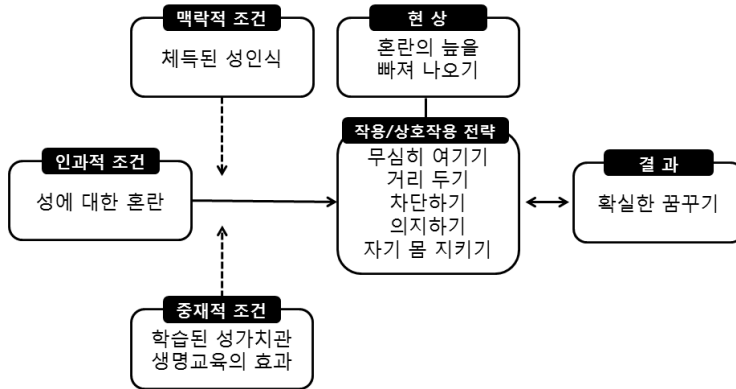
3. 축코딩 : 범주와 하위범주의 연결

축코딩(axial coding)은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코딩이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범주들을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축코딩에서는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각 조건들, 현상,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현상과 관련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순차적 과정을 분석한다⁹⁾.

1)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

축코딩 결과를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9) 위의 책, p.111.



〈그림 1〉 혼전 성윤리의식 형성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또는 우연적 조건(casual conditions)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우연적 또는 인과적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¹⁰⁾. 본 연구에서는 ‘성에 대한 혼란’이 핵심범주에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자들은 ‘성에 대한 혼란’이라는 역동적 작용을 통해 ‘혼란의 높을 빠져나오’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장과정 중 성을 인식하는 태도에 혼란을 겪게 된다. 엄격한 가정환경 안에서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도 몇몇이 하지 못하는 등, 성에 대해 지극히 수동적 사고와 일탈을 용납지 않는 태도를 몸에 익히며 자라온다. 성은 숨기고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친구들에 비해 자신을 너무 닫혀 있는 바보라고 인식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러한 가정교육에 순응하게 된다.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넌 조선시대의 여자” 아무래도 부모님이 정말 보수적이신 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참여자 1)

전 아버지가 군인이시고 상당히 보수적이시라 남자친구 사귀고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셔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하더라도 집안에서 절대 얘기 못하는 분위기.. 여자는 몸조심해야 한다는 말씀 늘 듣고..(참여자 10)

굉장히 엄마는 보수적이에요. 남자친구 사귀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늘 엄마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여자는 치마를 입을 때 늘 다리를 오픈해야 하고 짧은 치마는 안되고.. 파여진 옷도 입으면 안되고.. 아 여자는 정말 남자 앞에서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되겠구나. 지금도 반바지도 짧은 거 못입게 하시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 영향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옳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2)

10) 위의 책, p.119.

굉장히 엄마는 보수적이에요. 남자친구 사귀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늘 엄마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여자는 치마를 입을 때 늘 다리를 오므려야 하고 짧은 치마는 안되고.. 파어진 옷도 입으면 안되고.. 아 여자는 정말 남자 앞에서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되겠구나. 지금도 반바지도 짧은 거 못 입게 하시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 영향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옳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2)

옷도 좀 단정히 입는 걸 좋아하시고 남들보다 귀가시간이 훨씬 빠르고, 저도 그래서 그런지 옷을 노출적으로 못 입겠어요. 그래서 여자는 좀 조신해야 된다? 그런 영향이 많았고. 집밖은 너무 위험하다? 요즘 세상은 너무 무섭다. 남자였으면 늦게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걱정하시면 ‘아 걱정하시는 구나. 걱정시키지 말아야지.’ 불만도 정말 많았죠....처음에는 벗어나려고 했는데. 포기를 한 건지 순종적이었던 건지. 계속 걱정하고 계시니까 저도 결국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반항을 하다가도 제가 걱정되서. 불편함을 없애려고. (참여자 1)

참여자들은 성가정(聖家庭)으로 불리는 그들의 집 바깥에선 상상치도 못할 만큼 문란한 성문화가 퍼져가고 있음을 서서히 알게 되고 친한 친구의 혼전 성관계 이야기나 좋아하는 연예인과 성교를 꿈꾼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인다.

제 주변에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뭘하고 어떻게 됐다. 한번은 엄청 친한 친구에게 남자랑 잤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엄청 큰 충격을 먹었었죠. 그래서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6)

고3때 친구 중에 가수 비를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가수 비가 ‘(섹스)를 하자면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비라면 할 수 있다는 대답을 했어요. 너무 당당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 친구는 진심으로 얘기했고 나는 충격이었어요. 확실하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웃겼어요. 아무런 교류도, 그 사람은 친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데 말이에요. (참여자 1)

하지만 남녀공학 고교에 진학하거나 짝사랑하는 이상형, 또는 남자친구가 생기게 된 후 남학생들에게 성적 관심을 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남성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 생겨 욕구와 이성 사이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한다.

고3때는 합반이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엔 남자애들이 뒤에 앉으면 속옷이 보일까봐 담요를 두르고. 아무도 안 보는데. 남자애들 관심 끌고 싶어서 일부러 말 걸고 그랬거든요. (참여자 11)

얼마 전까지 저도 그런 걸 못 느꼈는데, 하, ‘그래 나도 꽃구경을 같이 갈 수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면,’ 라는 생각과 동시에....애들이 공부 못하는 게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외로워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근데 그게 공감이 가요. 진짜 중간고사 때는 옆에서 CC들이 하나면 챙겨줘도 ‘하, 부럽다.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는 등.... 감정 없이도 분위기에 취해서 남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2)

그러다가도 ‘아! 왜 욕구는 안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도 쾌락 추구하고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가도 ‘아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니까 다르다.’ 가치관이 왔다갔다. (참여자 7)

이러한 인과적 조건들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성에 대한 혼란	정 도	심함 - 약함

(2) 현상

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용어로서, 일련의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핵심적인 생각이나 사건이다¹¹⁾.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가치관 형성과정에서 느끼는 현상을 ‘혼란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로 명명하여 나타내었다. 현상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4>와 같다.

<표 4> 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혼란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태 도	적극적 - 소극적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사람들이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해야 하는 어떤 현상 또는 현상의 속성을 만들어 내는 특수한 조건의 집합으로, 어떤 현상에 대응하고 반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다. 이는 각 조건들에게 나오며 각 조건들이 다양한 양상을 만들어 내도록 차원적으로 교차하는 방식의 산물로서 핵심범주의 이유를 설명해 준다¹²⁾. 본 연구에서는 ‘체득된 성인식’이 ‘혼란의 늪에서 빠져나오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맥락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미 체득되어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게 된다. 그들에게 성관계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무분별함으로, 아름다움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순간의 쾌락으로 비춰진다.

좋고 사랑스럽고 아름답다기 보다는 무언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렇게만 보이고 좀 무분별한 아이들만 보이고 또 주변에서 그런 걸 하고 어쩔 땐 남자에게 돈을 받고 낙태하는 이야기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아야 되고.. 그렇게 책임감 없는.. 그런 면들만 많이 봤어요. 그냥 엄마가 아기를 낳고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성이랑 연관성 있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참여자 1)

11) 위의 책.

12) 위의 책.

정말 위해서 한다면보다는 서로 그 순간을 못 참고 그냥 '그거'에만 집착하는 거 있죠. 그렇게만 생각되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사랑해보다는 행위 자체를 통한 쾌락? 너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그런 걸 해본 것도 아니고 누굴 그만큼 사랑해 본 것도 아니어서 주변에 보이는 것이 그런 이미지들이고 그렇죠. (참여자 1)

남발한다고 할까? 사랑에 의해서가 아닌 순간의 쾌락? 그런 걸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다는 생각이예요.... 사랑이 없어도 너무 그런 일이 많고, 순간의 쾌락을 위해 돈을 쓰고 돈을 벌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그래요. (참여자 5)

또한 남성들의 성인식이 자신과 다름을 깨닫고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남성에게 대해 거부감을 느껴보았으며 음란물을 시청하는 남동생, 오빠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체험한다. 참여자들에게 체득되어 있는 성은 막연한 혐오감이며 이는 혼란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성교육 강사가 하는 말씀이...남자들은 여자를 처음 본 순간 머리에 뇌구조가...운동 섹스라는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가지고 갑자기, 아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도 이상하게 보이고,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아빠도...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그게 저한테는 몇 칠 정도는 되게 혼란이었어요.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서 되게 괴롭더라고요. 아휴, 내가 생각했던 거 보다.... (참여자 2)

제 동생이 그런 영상(음란물)을 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때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죽어야 할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다운로드를) 완전 차단 시켜놨어요. (참여자 8)

대학교 오면 꼭 CC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니들이랑 얘기를 하면 매일 남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절대 넘어가면 안된다고 남자는 믿을 만한 게 못된다고. (참여자 9)

이러한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5>와 같다.

<표 5>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체득된 성인식	정 도	강함 - 약함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거나 변화시키고, 특정한 맥락적 조건에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정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하며, 어떤 현상에 속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된 성가치관'과 '생명교육의 효과'가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치관 형성을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혼란의 늪을 빠져나

오는' 현상에 대처하도록 작용한다¹³⁾.

참여자들은 혼전 순결에 대해 다각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이는 '조선시대를 방불케 하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직접 말로 강요하지는 않지만 바른 몸가짐에 힘쓰게 되는 성당과 교회에서, 의례적이고 피상적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었던 학교의 성교육에서 성에 대한 가치관을 학습하게 되며 생명을 위협하는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과 생명의 참가치를 알게 되어 혼란 상황이 일정 부분 경감 또는 해소된다.

이 지구가 이렇게 깎이고 쌓이고 깎이고 쌓이고 한 것처럼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가정환경에 의해서 주입된 것 같아요. 좀 개방적인 사고를 하고 살았다면 이렇게 확고하진 않을 것 같은데. (참여자 9)

너무 당연했던 거? 저는 신자니까.. 누구도 강요한 적 없어요. 저 혼자 키워온 것? 어 그러네? 아무도 저에게 신자니까 지켜야 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왜 그렇죠? 아무도 말해준 적 없어요. 아무도 말 안했지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처음 생각해 봤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전 지금과 달랐겠지요. (참여자 10)

초등학교 5학 때 성교육을 했는데 교육이 끝나고 수녀님이 순결사탕을 주셨어요. "이걸 먹으면 너 자신을 지켜야 된다. 약속을 하는 사람만 먹어라." 그때는 순결이 뭔지도 몰랐죠. 뭐라고 생각했는지 기억도 안나요. 어느 순간부터 오기라고 해야 되나? '내가 약속하고 여태까지 지켜왔는데 그냥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보니 지금까지 지키게 된 것 같아요. 웬지 이걸 먹으면 정말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먹고 싶어요. 그러다 "그래 지키자!" 하고 먹었죠. 정말 오늘 처음 말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까먹고 있었는데. (참여자 6)

이러한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학습된 성가치관	강 도	강함 - 약함
생명교육의 효과	정 도	크다 - 적다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여 수행하고 반응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현상에 대처하거나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서 현상을 '어떤 방식(how)'으로 다듬어 가는 것이다¹⁴⁾.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혼란의 늪을 빠져나오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로 '무심히 여기기', '거리 두기', '차단하기', '의지하기', '자기 몸 지키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위의 책.

14) 위의 책, p.121.

참여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성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혼란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들은 성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무심히 대하거나 성적으로 무절제한 친구를 멀리하고 왜곡된 성문화 또는 남자 친구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며, 순결관이 투철한 선배에게 의지하거나 엄마가 될 자신의 몸을 인식하여 몸가짐을 바로 하고 남자 친구의 지나친 성적 접근을 뿌리치며 노출이 심한 옷을 일부러 삼가는 등 자기 몸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성...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 성이라고 하면 먼저 성관계가 떠오르는데 그 성관계는 일단 아직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참여자 10)

중학교 1학년 때 막 어른처럼 보이려고...남자여자 뺨 돌려 앉아서 옷을 하나씩 벗는 게임? 여자 친구 하나가 걸렸는데 그때 여자의 몸이 다 갖추어 진 건 아니었는데 남자들 앞에서 가슴을 열어 보여 주는데.. 너무 놀래서.. 사람을 보고 이러면 안되지만 ‘아 정말 더럽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너무 놀래서요. 개랑 두 번 다시 안봤거든요. (참여자 11)

지금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제게 그런 것을 원하면 진지하게 친구와의 관계를 고민해 보게 될 것 같아요. (참여자 5)

꽃대에 와서도 어떤 언니들은 정말 투철하고 순결반지도 끼고 다니시고..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참여자 7)

이게 나 혼자의 몸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저 혼자지만 저는 언젠가는 결혼을 할 거고, 제 몸에서 이젠 2세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생명이랑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지금은 혼자라고 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몸을 굴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2)

저는 결혼 전까지 지켜야 된다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남자가 좋지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렇게 다가오면 마음을 딱 닫거든요. (참여자 11)

이러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작용/상호작용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무심히 여기기	태 도	적극적 - 소극적
거리 두기	태 도	적극적 - 소극적
차단하기	정 도	강함 - 약함
의지하기	정 도	강함 - 약함
자기 몸 지키기	정 도	강함 - 약함

(6) 결과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¹⁵⁾.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혼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핵심범주를 갖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확실한 꿈을 꾸는’ 결과로 나타났다.

전략행동들은 결과적으로 혼전 순결에 대한 확신을 다질 수 있게 해 주었고 꿈과 비전이 분명할 때 성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어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 주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안되요. 절대로.. 지구가 멸망해도...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 결혼을 하겠죠? 그런 확신이 있다면? 한순간 쾌락을 위해선 절대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요. (참여자 9)

비전과 미래가 확실하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하는 사람일 꺼구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생각을 많이 해 본 사람일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엔 많은 고민과 갈등을 통해 발전이 이뤄진 것일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힘을 지녔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갈등을 하였을 때 합리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1)

꿈이 있고 꿈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당장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알잖아요. 뭐 실천으로 옮기기는 힘들겠지만 생각이라도 할 거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목표도 없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깐. 그런 성관계에 대해서도 아, 그냥 그 순간의 기분, 그 순간의 쾌락,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래서 애기가 생기면, 아, 낙태해야 되는 가보다. 내가 원치 않았으니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참여자 2)

또한 이러한 긍정적 신념들이 도덕적, 신앙적으로 내면화 되어 더욱 성숙한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었으며 이는 언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세상 안에서의 혼란을 빠져나오는데 도움을 주는 선순환의 결과가 나타났다.

세상의 시각에선 잘못이 아닐 수 있지만 하느님의 시각에선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 해 주셨고 그 뒤로 전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참여자 8)

혼전순결이 지켜지지 않아서 임신이 되면 그게 낙태로 이어지고.. 천주교를 다니면서 생명은 중요한 것이다. 낙태는 하면 안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낙태는 안된다. 그래서 혼전관계도 안된다. (참여자 9)

전 제 종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살아 온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종교적인 힘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성에 대한 문제도요. (참여자 9)

이러한 결과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 8>과 같다.

15) 위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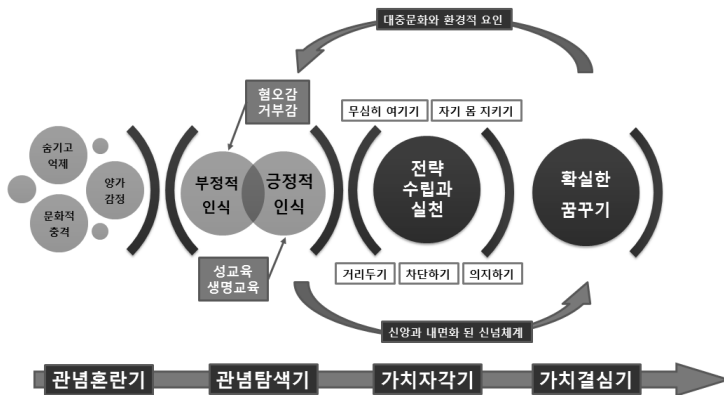
〈표 8〉 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확실한 꿈꾸기	태 도	적극적 - 소극적

2) 과정분석

과정분석(process analysis)이란 한 가지 현상과 관련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구조와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정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의미한다¹⁶⁾.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가치관 형성과정은 다음 〈그림 2〉의 ‘관념혼란기’, ‘관념탐색기’, ‘가치자각기’, ‘가치결심기’ 등 4단계의 하위과정으로 나타났다.

혼전 성윤리의식 형성과정은 참여자들이 성에 대한 혼란과 양가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과 주변 환경의 긍정, 부정적 인식을 탐색하여 결국 성의 아름다움을 자각하고 혼전순결을 지키고자 결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가치관 형성과정은 각각의 하위과정이 어느 정도 독립을 유지하면서(팔호) 각각의 조건들과 현상이 상호작용을 통해(순환 화살표) 시간의 흐름에 따라(전진방향 화살표)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그림 2〉 혼전 성윤리의식 형성과정

첫 번째 하위과정인 ‘관념혼란기’는 ‘숨기고 억제’, ‘문화적 충격’, ‘양가감정’ 등 인과적 또는 우연적 조건과 더불어 각 조건들이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잡한 심리사회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막연한 관념 차원에서 머물게 되는데 참여자들은 이러한 역동적인 심리사회적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져 온 성에 대한 구체적이지 못한 인식이 완전하지 못함을 깨닫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성을 올

16) 위의 책, p.148.

바로 인식하고 가치관을 확립하는 과정의 ‘문을 여는’ 중요단계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하위과정인 ‘관념탐색기’는 ‘혼란’을 통해 생긴 심리적 변화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체득되어진 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자신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진 혐오감, 거부감 등의 부정적 관념, 성교육과 생명교육을 통한 긍정적 관념들을 탐색하고 좀 더 ‘자기스러운’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 하위과정인 ‘가치자각기’는 탐색기를 통해 얻어진 관념들을 기초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단계이다. 이때부터 가치관 형성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행동전략들을 모색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참여자에 따라 두 번째 ‘관념탐색기’와 세 번째 ‘가치자각기’로 이행되는 기간이 다소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어떤 참여자들의 경우 두 번째 시기에서 세 번째 시기로의 이행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어떤 경우 얼마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기도 하는데 체득적 성인식이나 학습된 성교육이 강할수록, 또한 생명교육의 효과가 클수록 빠르게 이행되며 체득적 성인식이나 학습된 성교육이 약할수록, 또한 생명교육의 효과가 작을수록 미약하고 점진적으로 이행된다.

마지막 하위과정인 ‘가치결심기’는 ‘가치자각’을 통해 성에 대한 관념들이 실천적 가치로 바뀌면서 행동 결과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수정, 보완한 후 이를 내면화 또는 심화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도 참여자에 따라 세 번째 ‘가치자각기’와 네 번째 ‘가치결심기’로 이행되는 기간이 차이가 난다. 수립한 전략이 적극적이며 정도가 강할수록 빠르게 이행되며 전략이 소극적이며 정도가 약할수록 미약하고 점진적으로 이행된다.

이 과정 중 ‘가치결심기’를 통해 내면화된 가치가 대중문화와 환경적 요인 통해 다시 ‘관념탐색기’로 역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신앙과 내면화 된 신념체계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탈출하려 시도하고 이 경우 ‘가치자각기’를 생략한 채 ‘가치결심기’로 이행되는 현상을 보였다.

4. 선택코딩 :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와 통합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코딩의 마지막 단계로 핵심범주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작업이다. 핵심범주란 연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밝혀진 중심현상이다¹⁷⁾. 먼저 연구의 중심현상인 핵심범주를 각기 다른 범주와 연관 지어 통합하는데 이는 설명적인 진술을 통하여 이야기로 전개함으로써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술적 문장을 적는 것이다. 이야기의 윤곽을 통해 앞서 기술한 이야기를 좀 더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중심범주를 도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를 ‘혼란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로 선택하였다. 이는 연구현상에

17) 위의 책, p.130.

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과정(Basic Social-psychology Process : BSP)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행동패턴으로 볼 수 있다. 핵심범주를 도출하게 된 본 연구의 이야기기를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가톨릭의 모태신앙을 가지고 보수적이고 신앙적인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라왔다. 가톨릭의 교리가 혼전 순결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만 생활 패턴에 의해 자연스럽게 체득되어 져고 ‘조선시대 가정’이라 느낄 만큼 복장, 귀가, 외출, 외박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삶에 탈출을 시도해보기 했으나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마음에 평화를 잃고 결국 순응하게 된다.

엄마가 좀 고지식하세요. 남자친구 사귀는 거 싫어하시고, 첫 남자친구 생겼을 때 말씀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셔서 두 번째 부턴 말을 안했죠.(웃음) 그래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컨트롤 해 주시는 게. (참여자 7)

하지만 세상은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던 성적 밀어(密語)들이 2000년 한 시점을 기준으로 붓물 터지듯 대중매체를 장악해 온다. 당시 10대 초반이었던 참여자들은 급변하는 상업적 성문화에 충격 받기를 반복하면서도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의 흐름에 적응해 간다.

고등학교 때 성관계 하는 사진을 애들이 뽑아 와서 돌려 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웬지 다 아는 것처럼 하려고.. 진짜 충격인데 끌리기 싫은 거? 별로 안보고 싶었는데도 끌리기 싫어서 억지로 보고.. (참여자 12)

이러한 충격과 적응의 반복을 통해 참여자들은 욕구와 이성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된다. 당연한 줄로만 알고 살아왔던 가치체계의 붕괴이며, 어쩌면 한번쯤 꿈꾸었던 반항이기도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성인 영화를 빌려 보기도 하며 은밀한 어른놀이에 빠져보기도 한다.

그렇게 야한 영화를 보고 하는 게 제가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줬어요. 뭔가 성적인 얘기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성적인 장난을 치거나 그런 영화를 보는 게 웬지 우리가 굉장히 성숙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줬어요. (참여자 10)

때로 이미 체득되어진 혼전 성관계에 대한 혐오감과 남성의 성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성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갖기도 한다.

성에 대한 가치관이 없을 때 안 좋은 것을 많이 보게 되어서 더 보수적으로 안으로 들어 온 것 같아요. 정말 성은 좋은 건데 좋은 성을 보고 자랐으면 제가 가진 가치관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봐 온 건 다 부정적이고 매체에서 보는 것도 다 안 좋은 거고, 아! 혼전성관계는 안 좋은 거구나. (참여자 2)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학습되어 온 성과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통해 혼란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사람은 누구나 쾌락 추구하잖아요. 먹으면서 쾌락 자면서 쾌락, 그런데 그 쾌락은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낙태로 이어질 것이고.. 잘못된 관계를 했다하더라도 돌이 책임져서 낳는다면.. 그런 경우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참여자 7)

따라서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핵심범주인 ‘혼란의 늪에서 빠져 나가기’를 끝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정말 애처로운 눈빛으로 부탁할 때 단호하게 뿌리치긴 굉장히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거부를 할 것 같아요. 절대. (참여자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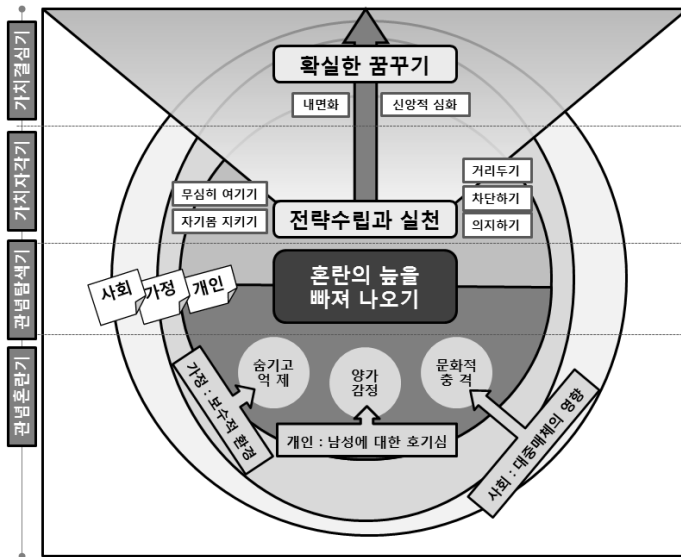
그러한 노력은 혼란의 늪을 빠져 나와 성적 결정권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었음을 자각하고 행여 생기게 될 경우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참여자들은 혼란의 늪에 빠지기 전보다 성에 대해 더 굳건한 가치관을 갖게 되며 생각과 현실이 갖지 않음을 인식하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안팎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 요구를 받으면 그 남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버릴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정말 날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너무 보수적인 생각이긴 한데 저는 그래요. (참여자 9)

5. ‘혼란의 늪을 빠져나와 확실한 꿈꾸기’ 상황모형 분석

상황모형(Matrix)은 다양한 상황적 조건 즉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이 미시적, 거시적 조건에 따라 작용/상호작용과 얹혀서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분석도구로서 일련의 개념들을 도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통합된 설명을 구축하고 각 조건들과 현상간의 관계의 본질을 밝혀내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황모형 분석은 조건/결과는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황 속에 통

합되어 있으며 이것은 시간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작용/상호작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준다¹⁸⁾.



〈그림 3〉 ‘혼란의 늪을 빠져나와 확실한 꿈꾸기’ 상황모형

본 연구에서 ‘혼란의 늪을 빠져나와 확실한 꿈꾸기’의 상황모형은 위의 〈그림 3〉과 같다. 모형을 보면 ‘혼란의 늪을 빠져나오기’를 둘러싸고 모든 조건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혼란의 늪을 빠져나오기’가 개인 수준에서 일어나지만 개인 심리적·내면적 경험과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양가감정(개인적 요인)’, ‘숨기고 억제(가정적 요인)’, ‘문화적 충격(사회적 요인)’ 등 심리내면의 변화와 더불어 크고 작은 계기들, 그리고 각종 환경적 요소 등 거의 모든 조건들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심리사회적 과정이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개인수준에서 사회수준까지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여 혼란의 늪을 빠져 나와 가정, 사회 안에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내면적인 요소들과 주위환경들은 혼란의 늪에서 계속 참여자를 밀어내며 다양한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친구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자존심을 희생시켜 자신의 가치관을 지켜나가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등 극단적인 자기 방어를 하기도 한다. 그 후 참여자들은 확실한 꿈꾸기를 통해 가치관의 내면화와 심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게 되는데 상품화 된 성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주위 친구들에게 성윤리 확립을 권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시 혼란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18) 위의 책, p.165.

참여자들은 확실하고 분명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줄 알며 그러기 위해 충동적인 성적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는 데에 합의하며 ‘확실한 꿈꾸기’야 말로 성윤리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에 동의한다¹⁹⁾.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가톨릭계 대학 여학생들의 혼전 성윤리의식 형성과정의 어떠한가를 이해하고 어떻게 관념의 혼란으로부터 가치를 결심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모델을 생성하여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의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혼전 성윤리의식 형성과정의 중심현상은 ‘혼란의 늪을 빠져나오기’로 파악되었다. 즉 여학생들의 순결 가치관 형성은 단순한 가정교육의 영향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닌 ‘혼란의 늪을 빠져나와 확실한 꿈을 꾸는 과정’이었고,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외적으로 변해가는 점진적인 발달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개인만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인간과 환경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교류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체계로 보는 생태체계관점의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양가감정’, ‘숨기고 억제’, ‘문화적 충격’ 등의 단계는 성장과정 자연스럽게 체득된 성에 대한 관념과 내적 발달, 외적 환경이 불일치를 이루어 나타나는 혼란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성에 대한 관념의 문제는 현대 사회문화를 기준으로 볼 때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치며 사회문화적으로 표면화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사회, 종교 내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게 하여 윤리 도덕관을 확립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교육은 아직 각 영역마다 그 목표와 방법에 있어 서로 상이하며 체계적이지 못해 중고등학교의 지역별, 유형별로 질과 양에서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대중매체나 음란물의 영향 아래 문화화 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인격 속에 건전하고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 및 자각을 길러주기 위해 가정, 학교, 사회 또는 종교가 그 영역을 확실히 하고 맡은 영역에서의 성교육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역할과 대학생들의 성태도간의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는 설명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쾌락위주의 단편

19) 본 결과는 한 차례 운영된 초점집단 인터뷰의 가장 핵심적인 맥락으로 파악된다.

적인 성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전 생애를 거쳐 함께 해야 하는 총체적인 성을 보여주고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혼전 성윤리의식 형성과정에서 중요요인으로 밝혀진 중재적 조건은 ‘학습된 성가치관’과 ‘생명교육의 효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을 강조하는 성교육과 이를 통해 소중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됨을 가르치는 생명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생명교육을 통해 성행동이 일회적인 쾌락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잉태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짐을 인식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해선 안된다’는 식의 성교육이 의미없음을 지적하고 낙태영상과도 같은 충격적 이미지가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임신과 낙태로 이어지는 혼전 성관계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므로 ‘피임교육이 순결교육보다 중요하다’는 문화적 합의²⁰⁾를 넘어서 ‘생명교육이 피임교육보다 중요하다’는 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순결을 지키는 것이 점차 구시대적 발상으로 치부되는 현실이라면 순결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태아는 시대와 무관하게 소중한 존재임을, 태아는 몸에 붙은 혹이 아닌 엄연한 생명이며 이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살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생명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생명을 지닌 주체이자 생명에 대한 책임의 주체인 인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성과 생명을 하나의 연장선에서 바라보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혼전 성윤리의식 형성과정에서의 중심현상은 ‘혼란의 늪에서 빠져나오기’였는데, 이는 매우 급격히 개방적인 경향의 성문화와 교육된 전통적 성윤리관과 충돌을 일으켜 성에 대한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 이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포함한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심리사회적 과정으로 단순한 인과과정이지 아니므로 쉽게 개입효과가 드러나거나 증명되기 힘들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혼전 성윤리의식의 형성을 돕는 교육은 개입효과를 조금씩 기대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발달과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해야 하며 개인의 몫으로 맡겨져 있던 전략수립과 실천과정을 돕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성지식의 전달이나 성도덕 이해의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닌 청소년들의 인격 속에서 건전하고도 올바른 성에 대한 의식 및 자각을 길러주어야 하며, 혼란상황에서도 책임과 자율이 함께 따르는 성적 주체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혼전 성윤리의식 형성과정의 결과에 해당하는 ‘확실한 꿈꾸기’는 가치관이 확립되는 과정에서의 내면화와 신앙적 심화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가치결심과 비전 설정이 강하게 이루어졌을 때 다시 혼란의 늪에 빠지는 일이 드물 것이며 충동적인 성적 행동이 억제될 것이라는 논의를 통해, ‘확실한 꿈꾸기’를 도울 수 있는 교육서비스가 필요함을 알

20) 〈청소년의 성, 순결도 중요하지만 피임은 필수〉, 〈연합뉴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2011년 5월 24일자.

수 있다. 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인식과 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진로지도 개입을 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노력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기다려주고 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는 혼전 성윤리의식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을 이미 지니고 있는 참여자들을 의도표집 하였으며 그러기 위해 가톨릭계 대학이라는 대단히 종교적인 배경과 제한된 범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성윤리의식 형성과정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상원.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경기교육논총』 제6호. 1997.
- 김영옥. 「혼전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3.
- 김영화. 「성문화와 성윤리: 한국사회 성모순의 극복을 위하여」. 『경북대학교복지행정논총』 제7권. 1997.
- 김영희.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정옥. 「학교성교육의 현황 및 지도내용에 관한 연구(II)」. 『대구대학교 사회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지』, 5호(1998)
- 박현이. 「10대 남자 청소년의 성행태에 대한 조사: “10대 임신과 남자의 무책임, 무엇이 문제인가?”」. 『2000년 제2회 10대 임신예방을 위한 연속토론회』. 2000.
- 박휘두. 「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태도에 관한 연구」. 『삼척대학교학생생활연구』 제3권 2호. 1997.
- 배성미. 「청소년의 성지식, 성태도가 생행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성영자. 「남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과 상관변인에 관한 분석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손애리·천성수. 「전국 대학생의 성의식, 첫 성경험 및 성행동에 대한 성차」. 『보건과 사회과학』. VOL.18. 2005.
- 윤경자. 「성별에 따른 혼외성관계 허용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귀현. 「성교육 후 일개 고등학교 여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 및 지식 변화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이연희·이정희. 「서원대생의 성의식 실태조사」. 『서원대학교학생생활연구』 제18권. 2001.
- 이인숙. 「일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정연.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대인관계 간의 상관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임미림·변영순. 「학부모들의 성의식, 성교육 태도 조사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권 1호. 서울: 한국학교보건학회. 2002.
- 장휘숙. 『청년심리학』. 서울: 장승. 1996.
- 〈청소년의 성, 순결도 중요하지만 피임은 필수〉, 〈연합뉴스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2011년 5월 24일자 보도.
-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홍식 외 역. 『질적 연구방법론』(서울: 학지사, 2005).
- Bell, R. R. & Coughy, K.. “Premarital Sexual Experience Among College Females, 1958, 1986&1978” *Family Relations*, 29, 1990.
- Cate, R. M. Long, E., Angera, J. J., & Draper, K. K.. “Sexual Intercourse and Relationship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42, 1993.
- Greckhamer, Thomas & Koro-Ljungberg, Mirka. The erosion of a method: examples from

- grounded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18(6), (2005)
- Miller, B.C. & Moore, K.A., "Adolescent Sexual Behavior, Pregnancy and Parenting : Research through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990.
- Reiss, I.L. *The Social Context of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New York : Macmillan Free Press, 1960.
- Strauss, A. & Corbin, J.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1990.
- Strauss, A. & Corbin, J.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 1998.

원고접수 : 2012년 11월 1일 / 1차 심사 : 12월 6일 / 2차 심사 : 12월 13일 게재승인
일 : 12월 14일

연구자소개 : 김승주

- ① 전공 : 사회복지학, 실천신학 / 소속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② 관심영역 : 종교교육, 생명교육, 대중매체
 - ③ 주요논저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임신인공중절에 대한 태도 관련요인 분석, 눈치개
넘연구 등
 - ④ E-mail : superpc@kkot.ac.kr
-

Abstract

Modeling of the Process of Korean Student's Premarital Sexual Attitudes: Focused on the Girl Students at Catholic University

Kim, Seungju

Kkotongnae University

This study concern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premarital sexual attitudes of youth, explores how the young people develop the sexual attitudes of their own, in a situation of the confusion of sexual values and the collapse of sexual morality, and explains the meaning of that process and experience. The study is carried out by apply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of Strauss and Corbin(1998). The results of the study point out the 'Escape from the Swamp of Confusion' as the central phenomenon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premarital sexual attitudes. ie, the development of the purity values of the girl students was seen as the process of 'escaping from the swamp of confusion and dreaming positive dreams, other than the influence of simple family discipline or religious belief. It could be seen as the gradual process of development as changing towards internal and external through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 and so, it could be found that this kind of process is made not only from the experience of the person but also through their interaction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refore to prepare a healthy and right awareness and consciousness about sex in the personality of the youth, it is necessary that the family, school, society and religion should ensure their respective parts and should continuously maintain the sex education consistent to their sphere. And a 'life-education' that teaches the healthy maintenance of the body which should produce the fruit of precious life should be formed. And also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system in order to help the strategy and practical process which were left as their personal matter, through cultivating programmes fit for the development stages of the youth and help them to dream 'positive dreams' by establishing a concrete and definite vision.

Key words : sexual Attitudes, sexual value, chastity before marriage, grounded theory